



봉우 컬럼

언어의 3대원칙

요즘 보복 운전이 무섭다. 잘못 끼어들거나 진로를 방해하면 성격이 급한 운전자들에게 보복 운전을 당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운전을 할 때 주의해야 한다. 대화도 이와 흡사하다. 한 예로 우리 성도간에 문제가 있어 내게 상담을 왔기에 서로 만나 대화로 풀라고 했다. 그런데 며칠 후에 들은 결과는 더욱 관계가 악화되었다는 것이었다. 왜 그랬을까? 그들은 대화의 법을 몰랐기 때문에 대화 전보다 나쁜 결과를 낳은 것이다.

대화에도 원칙이 있다. 이것 지키는 때 원만하게 대화를 할 수 있다.

첫째, 상대가 말할 때 맞받아치지 말라. 둘째, 상대가 말할 때 끼어들지 말라. 셋째, 상대가 말할 때 앞지르지 말라.

누구나 다 위의 경험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화자가 나일 때 상대가 맞받아치거나 말하는데 끼어들거나 내 말을 듣기도 전에 앞지르면 그때 기분이 어땠는가? 결코 좋은 기분은 아니었을 것이다. 상대가 건방지게 보이고, 무지하게 생각되고, 예의라고는 눈을 찡긐 찾아봐도 없다는 생각이 들 것이다. 그러나 상대방이 내 말을 경청하면 인격자로 보이고, 예의를 아는 자로 그 사람과 더욱 친분을 쌓게 될 것이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신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게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 하며 성 내기도 더디 하라"(약1:19). 곧 '너는 상대가 말할 때 경청하고 상대가 의도하는 바를 깨달아 감정적 반응을 자제하며 즉답을 피하고 심사숙고하라. 울무에 걸릴까 조심하라'는 말씀이다. 대화 속에 인격이 드러나 천박스럽게 보일까 염려하시는 말씀이다. 말 한마디로 친구와 원수가 될 수 있지만, 말 한마디로 천 냥 빚도 갚을 수 있기 때문이다.

언어는 우리 삶의 예술이다. 입으로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어라.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에 금사과니라"(잠25:11).

작정기도는 하늘 문을 여는 열쇠다

지난 5월 23일, 목사님은 인천교역자들을 본부로 불러들여 이렇게 말씀하셨다. "인천교회는 예수중심교단의 모(母)교회다. 이 부흥의 때를 놓치지 말자. 나는 여러분을 믿는다. 주인의식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일해주시기 바란다. 인천교회가 좁다는 아우성을 듣고 싶다. 하늘나라에 왕자리가 너무 많이 비어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사명을 감당할 때 그 자리는 여러분 것이 될 것이다. 나는 여러분에게 사정은 하지 않는다. 다만 충성된 여러분에게 부탁할 뿐이다. 내가 먼저 불이 붙어야 남도 불붙게 할 수 있다. 내가 먼저 깃발을 높이 들고 나갈 때 모든 성도들이 따라올 것이다. 우리는 할 수 있다!"

사는 자기 교인들만 와도 차고 넘친다고 공언하였다. 그러나 뚜껑을 열고 보니 바닥조차 채우지 못했고, 그로인해 번민의 나날을 보내야 했다. 애통하는 간절한 기도로 결국 마지막 날에는 집회장을 가득 채우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작품을 만들고 돌아올 수 있었지만, 이 기억은 항상 거울이 되어 '하나님이 보내시지 않으면 올 자가 없다'(요6:44)는 확고한 영적 전투태세를 갖게 하였다.

돌이켜보면, 1992년 6월 7일의 메인스타디움집회도 6개월에 걸친 작정기도의 산물이었고, 그 이후의 많은 대형집회들, 최근의 서울시청광장이나 용산 전쟁기념관에서 진행되었던 평화통일 기도성

준비한 결과다.

가정이나 단체나 국가나 마찬가지다. 하나님 앞에 분명한 뜻을 정하고 작정기도로 매달리는 것은 하늘 문을 여는 확실한 열쇠가 아닐 수 없다. 문제가 있는가? 작정기도 하라. '두 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함께 하신다'(마18:20)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가족이 함께 기도하라. 구역에, 조에 해결해야 할 일이 있는가? 기도처에 모여 합심으로 작정기도 하라. 교회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마찬가지다. 지금의 한반도 평화무드가 시작된 발원지는 누가 뭐라 해도 우리 교단이 지난 2013년부터 9차에 걸쳐 국가와 민족의 평화와 통일을 위해 진행한 평화통일 기도성회라고 당



작정기도와 믿음의 선포대로 차고 넘친 인천전도집회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천전도집회의 일정을 발표하시며 작정기도를 명하셨다. 약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일정이었지만, 뜻을 정하고 하나님께 작정기도로 모두가 합심하여 매달린다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가 뿌린 대로 역사하실 것이라 강조하셨다.

서울교회는 교역자들을 제외하고는 참석을 자제하기로 결정하였다. 오로지 인천교회 스스로 이 집회를 성공시켜야 한다는 의미에서였다. 또한 목사님께서 항상 집회를 앞두고 염두에 두시는 사건, 곧 2001년의 아르헨티나(Argentina) 부에노스아이레스(Buenos Aires) 집회가 거울이 되고 있기에 더욱 그러하였다. 당시 집회를 배설한 카니발(Carnival) 목

회 역시 수개월에 걸친 작정기도와 치밀하고도 헌신적인 노력의 산물이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

목사님은 이번 인천집회 준비에 임하는 방송팀에게 대성전의 예배를 소성전 및 교육관의 모든 예배실, 심지어 로비에까지 증계할 수 있도록 시설을 갖춰서 말뿐이 아니라 정말로 인천교회가 차고 넘쳐서 좁다는 아우성이 날 정도로 입을 크게 벌려 준비하라고 당부하셨다. 그리고 그 결과는 우리가 목도한 대로이다. 소성전 및 교육관의 각 예배실뿐 아니라 로비가 지 몰려온 성도들로 가득 차는 역사로 하나님은 응답해주셨다. 작정기도와 믿음의 선포가 이룬 결과다. 또한 그 믿음이 선포에 발맞춰 입을 크게 벌리고 철저히

당히 말할 수 있다. 이 역시 우리 예수중심교단이 전 교단적으로 작정기도 하며 하나님께 매달린 결과이다. 이것이 우리가 눈으로 보고도 믿지 못할 정도의 역사적 사건들이 작금의 한반도에서 진행되고 있는 이유다. 그러나 이는 시작에 불과하다. 반드시 우리가 기도한대로 꿈꾸는 듯한 평화통일의 역사가 우리 세대 안에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을 목도할 뿐 아니라 저 평양의 김일성광장을 평화의 광장으로 만들어 그곳에서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는 날이 반드시 오고야 말 것이다. 우리가 이를 위해 작정기도 했기 때문이고, 지금도 쉬지 않고 국가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교단이기 때문이다.

한은택 목사

제23회 청소년 연합수련회

중고등부: 7월 29(월)~31일(수), 청년대학부: 8월 1일(목)~3일(토)
문의: 02-533-9191



이초석 목사 주일설교(잠18:20~21)

운명을 바꾸려면 생각과 언어를 바꿔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창1:1). 성경을 펴면 첫 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 천지만물은 다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매 빛이 있었고”(창1:3),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게 하리라 하시고 … 그대로 되니라”(창1:6~7). 그런데 이 말씀을 잘 보면 ‘가라사대’라는 말씀이 꼭 나옵니다. 이는 ‘말씀하시되’라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은 천지를 말씀으로 명령하셨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대로 되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요1:1~4). 이사야 55장 11절에는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며 하나님 말씀의 능력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도 말씀으로 귀신을 쫓고 만물을 명령하셨음을 사복음서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롬10:10). 곧 우리의 구원도 말에 있으며, 우리의 간구도 기도, 곧 말에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자로(창1:27), 말의 권세도 닮았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언어를 허락하셨고, 그 말에 능력을 주셨는데, 우리의 말하는 것을 듣고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신다고 하셨습니다(민14:28).

생사회복이 네 혀에 달려있다

사람들도 ‘말이 씨’라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씨 속에 생명이 있듯 말 속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씨를 심듯 좋은 말을 삶 속에 심어야 합니다.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약3:12). 민수가 14장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기 위해 12명의 정탐꾼을 파견합니다. 그런데 40일간 정탐을 마친 그들의 평은 너무 달랐습니다. 똑같은 곳을 똑같이 보고 왔는데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명은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가나안 땅이 좋기는 하지만,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와 같아서 거기 가면 다 잡혀 죽는다고 했습니다. 그 부정적인 보고에 백성들은 원망을 합니다. 10명의 정탐꾼이 나쁜 씨를 뿌렸는데, 백성들이 거기에 물을 준 것입니다. 당연히 나쁜 결과를 주렁주렁 맺을 수밖에요. 그 결

과입니다.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탐지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으로 모세를 원망케 한 사람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민14:36~37). 부정적인 말에 동조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과는요? “너희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요 너희 자녀들은 너희의 패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사십년을 광야에서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너희가 그 땅을 탐지한 날수 사십일의 하루를 일년으로 환산하여 그 사십년간 너희가 너희의 죄악을 질찌니 너희가 나의 싫어 버림을 알리라 하셨다

하라”(민14:32~34). 이는 “마음이 사특한 자는 복을 얻지 못하고 혀가 패역한 자는 재앙에 빠지느니라”(잠17:20)는 말씀이 응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10명과 달리 보고한 여호수아와 갈렙을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땅은 너무 아름답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능히 이길 수 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겁내지 말라’(민14:6~9)고 했습니다. 아주 좋은 씨를 뿌린 겁니다. 당연히 좋은 열매를 거두게 되지요. “그 땅을 탐지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 오직 주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민14:38). 여러분, 좋은 말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에 족하며 그 손의 행하는 대로 자기가 받느니라”(잠12:14)는 말씀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위인들은 상황이 어떠하든 그 입술을 지켰습니다. 다윗은 처참한 지경에서도 “나의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

가 여호와와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시23:6)라고 말하더니 그의 말년이 부하고 존귀했고, 욥은 자식이 다 죽고 재산이 다 날아간 상황에서도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욥1:21)라고 말해 갑절의 축복을 받았으며, 사도 바울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빌4:13)고 고백했습니다.

인생은 말(言)을 타고 다니는 것과 같습니다. 사실 말(言)과 말(馬)은 다스리기 나름입니다. 야생마는 그야말로 천방지축입니다. 아무 것이나 걷어차고 부수고 날뛰니 말(言)도 그렇

습니다. 자다. 자고로 터진 입이라고 말을 막 하는 것을 보면 참 가관입니다. 상스러운 말, 부정적인 말, 남 상처 주는 말…, 건질 말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는 말들의 75%가 부정적이고 나쁜 말이라고 어느 연구소에서 연구 보고한 적이 있습니다. 다스리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약3:8). 그런데 말을 다스리기 전에 먼저 다스릴 것이 있으니, 그것은 마음입니다. 자고로 말이란 생각이란 주머니에서 나오는 것이기에 그렇습니다. 생각이 설계사와 같다면, 말은 설계대로 집을 짓는 건축가와 같습니다. 마음속에 불평불만이 가득한데 감사의 말이 나오니까? 마음에 온갖 추한 것이 가득한데 경건한 말이 나오니까? 병 속에 오렌지 주스가 들어있으면 오렌지 주스가 나오지 토마토 주스가 나오지 않습니다. 병에 오물이 가득하면 오물이 나오는 겁니다. 곧 말이란 생각의 외형이라는 것이죠.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가 풀무불에 떨어졌

을 때도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리 아니하실찌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단3:17~18)라고 당차게 말한 것은, 그들 마음속에 굳은 신앙이 자리하고 있어서 그런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를 돌아봐야 합니다.

인생은 말로 채색되는 예술이다

나는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아이고, 못 살겠다.’, ‘이놈의 팔자야.’, ‘죽는 게 낫지.’ 이렇게 뿌리면 정말 그대로 됩니다. 그대로 되어야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아니겠습니까? 언젠가 제가 초소형 녹음기를 차고 목사인 나는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자가 진단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날 밤에 집에 돌아와 녹음된 제 말을 들어보니 정말이지 부정적인 말 하나 없이 다 긍정적인 말, 남을 살리는 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녹음되어 있었습니다. 감사했습니다. 사실 저는 야생마와 같은 성격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래서 실수도 많이 하고, 손해도 많이 보고, 수치도 많이 당했습니다. 그런 제가 성령을 받고 저의 내면이 달라지니 말이 달라졌고, 말이 달라지니 행동이 달라졌고, 그것이 운명을 바꾸었습니다. 뿌리가 썩은 나무에 물을 주면 더 썩습니다. 그러므로 마음속에 더러운 것들을 쏙아내고 긍정과 감사와 사랑으로 채워보세요. 그러면 말이 예뻐집니다. 말이 고와지고, 말이 긍정적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것이 당신의 삶을 아름답게, 곱게, 긍정적으로 만들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마5:48)고 하셨습니다. 온전하게 되는 길이요? 말, 말조심하면 됩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약3:2). 잘못 뿌린 씨가 있거든 썩이 나기 전에 기도로 뽑아버리고, 이제부터는 좋은 씨를 뿌립시다. 좋은 말, 긍정적인 말, 감사의 말, 칭찬의 말, 남을 살리는 말, 믿음의 말을 하며 삽시다.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꾀술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여 이를 좇으라”(벧전3:10~11). 할렐루야!



총회장 이초석 목사

집중 투자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는 것은 투자의 기본이 되는 말이다. 한 바구니에 계란을 다 담았다가 돌부리에 넘어지거나 누가 쳐서 떨어뜨리면 한꺼번에 다 깨지니 위험과 수익에 따라 분산 투자하는 것이다. 그러나 신앙은 이와 다르다.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아야 한다. 한 곳에 올인(All in)해야 한다. 왜냐? 신앙은 유일(Only)하기 때문이다.”

얼마 전 목사님께서 봉우컬럼을 통해 주신 말씀입니다.

가치투자를 표방하는 찰리 멩거도 동일하게 자산 다각화가 매력 없다고 말하며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것을 지지했습니다. 멩거는 이러한 그들의 투자스타일을 ‘집중 투자’라고 말합니다.

가치투자의 경우, 투자 스타일을 다채롭게 만드는 몇 가지 변수들이 있습니다. 사업의 적절한 내재가치를 판단하는 것, 적절한 안전마진을 결정하는 것, 투자자의 능력 범위를 파악하는 것, 각각의 주식을 몇 주나 매입할지 결정하는 것, 매각시점을 결정하는 것, 헐값에 거래되는 자산을 찾았을 때 얼마나 돈을 걸지 결정하는 것, 소유할 사업을 결정하는 것 등입니다.

이 중 각각의 주식을 몇 주나 매입할지 결정하는 것과 연관된 투자 스타일이 바로 멩거가 주장하는 집중 투자입니다. 멩거는 “투자할 만한 좋은 주식을 찾는 것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몇 개의 선택에 집중한다는 생각이 내게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생각이다. 그러나 투자자의 98퍼센

트는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단순히 좋은 회사만을 골라낸다고 될 일이 아니며 그중에서도 가격이 잘못 산정된 것을 골라내야 한다고 했습니다. 반면 멩거의 집중 투자 방식에 동의하지 않고 분산투자를 신뢰하는 가치투자자도 물론 있습니다. 그 좋은 예가 그레이엄 자 신입니다. 그러나 그레이엄과 같은 위대한 투자분석가조차도 ‘적절하지만 과도하지 않은 약 10~30개 정도의 주식을 보유하는 수준의 분산’을 강조했습니다. 한편 워렌 버핏도 ‘분산’을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잘 모르는 경우 세워놓는 보호막이라고 생각합니다. 투자분산을 극대화한 것이 바로 수수료가 낮은 인덱스펀드와 상장지수펀드(ETF)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종류의 주식에 투자해서 유사 인덱스펀드에 투자한 것과 다름없는 경우를 멩거는 가장 우울한 경우라고 여깁니다.

목사님께서는 컬럼을 통해 “하나님 외에, 예수 외에 다른 것에 마음을 주지 말라. 우왕좌왕하는 신앙을 버려라. ‘오직 믿음’의 삶을 살라. 신앙은 많은 것 중 최고의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의 길’을 찾는 것이니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덧붙여 말씀하시길 “투자의 경우에도 계란은 한 바구니에 담아야 가지고 다니기 쉽고 부화시키기 쉽다.”고 하시며 ‘유정란’만 잘 찾으라고 권면하셨습니다.

이미경 권사
lmkwdf@hotmail.com

:: 세상을 보는 창 ::

소금 같은 사람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그리스도인은 ‘빛과 소금’의 정체성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울러 맛을 잃은 소금은 쓸데가 없으므로 바깥에 버려져서 사람들이 짓밟는다고도 하셨습니다. 이는 소금이 음식에 들어가면 맛을 내고, 물고기의 부패를 방지하듯이 꼭 필요한 사람으로 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꼭 필요하고 영향력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일까? 우리가 소금이기 때문에 소금처럼 ‘갈증을 유발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만났을 때 하나님에 대한 호기심이나 영적 갈증을 느끼게 하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 즉 우리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궁금증이 생기도록 살아야 할 책임이 있다.

만약 우리가 복수해야 할 때에 용서하고, 미워해야 할 때에 사랑하며, 비난하면서 불순종할 때 순종하며 섬기는 삶을 살아간다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호기심을 갖게 되고, 또한 “나도 당신처럼 살고 싶다~!”라고 부러워하며 질문해온다면, 그 사람은 이웃에게 ‘영적 갈증’을 일으키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그런데 왜 우리가 소금처럼 이웃에게 영적 갈증을 유발시키는 삶을 살지 못할까? 그 이유는 언제 소금이 맛을 잃게 되는지 생각하면 알 수 있다. 먼저, 내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을 그만둘 때다. 반드시 해야 할 일, 즉 ‘사명’을 다하지 못할 때 세상에서 더 이상 맛을 내는 소금이 될 수가 없다. 그리스도인이 반드시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그것은 복음을 전하는 일이다. 복음을 전할 때 우리는 맛을 내는 소금이 된다.

둘째, 우리가 희생하기를 포기할 때다. 희생은 소금의 모습이다. 소금은 녹아서 부패를 방지하고, 녹아서 맛을 낸다. 그리스도인은 희생할 줄 알아야 한다. 봉사의 자리에서 또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많은 것을 희생할 수 있어야 한다.

옛날에는 일꾼들에게 돈 대신 소금을 주기도 했다. 그래서 소금이라는 ‘salt’가 일꾼들에게 주는 봉급이라는 ‘salary’라는 말의 어원이 되었다고 한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맛을 내는 소금이 되어야 한다.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었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눅 14:34).

이정금 전도사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요술쟁이의 집에 생쥐와 고양이가 함께 살았다. 어느 날, 고양이만 보면 두려움에 떠는 생쥐의 모습이 안타까웠던 요술쟁이는 생쥐를 고양이 모습으로 바꾸어 주었다. 그랬더니 고양이로 겉모습이 바뀐 생쥐는 이제는 개를 무서워하게 되었다. 그래서 개의 모양으로 바꾸어주었더니 호랑이를 무서워하는 것을 본 요술쟁이는 겉모습을 아무리 바꾸어주어도 마음은 여전히 두려움으로 가득 찬 생쥐이니 그냥 생쥐로 살라고 다시 생쥐로 바꾸어주었다.

세상만사 마음먹기에 달렸다. 성경은 그 마음이 믿음이라 하시며, ‘네 믿음대로 되리라’고 하신다. 그리고 생명의 근원이 그 마음에 있으니 잘 지키라고 권면 하신다(잠4:23).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은 불안과 두려움이다. 모세의 뒤를 이은 여호수아는 가나안 정복을 앞에

두고 마음이 두려웠다. 일을 시작하기도 전에 마음이 약해져 있는 여호수아를 향해 하나님은 말씀하신다.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수1:9).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못할 일이 없다. 진정한 힘과 능력은 나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에게서 온다. 어린 딸의 죽음 앞에 두려워 떠는 아비에게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막5:36)고 말씀하신 예수께서 그 딸을 살려주셨던 것을 기억하자. 하나님은 구원받은 우리에게 담대히 세상과 맞설 것을 명령하신다. 두려워말자. 불안해하지도 말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승리는 우리 것이다.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으신다. 오직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다.

김상욱 목사
ksw9669@hanmail.net



:: 생명의 말씀 ::

차차와 걸걸

마귀가 세상을 두루 돌아다닌 후에 총회를 했다. 그가 성도들을 어떻게 유혹하여 넘어뜨렸는지 자기 나름대로 사용했던 방법을 정리하여 발표하였다.

마귀의 발표는 대략 세 가지로 정리가 되었다. 첫 번째는 사람들을 힘으로 정복하는 것이었다. 환난과 핍박을 통해서 성도를 무너뜨리는 것이다. 갑자기 불어 닥친 시련은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뒤흔들기에 충분하였다. 그것은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다.

두 번째는 풍족하게 주어서 스스로 타락하게 하는 것이었다. 사람들은 부족할 때는 하나님께 매달리다가 여유가 있으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잃고, 그것을 즐기기에 바빠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 그것도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다.

하지만 세 번째 방법이 가장 효과가 있었다. 그것은 ‘내일 하라’는 것. 마귀는 ‘하지 마라’가 아니라 ‘내일 하라’는 말로 우리를 유혹한다. ‘차차 하면 되지 뭐. 누가 안 한다고 했나? 조금 있다가 할 거야.’ 이런 바 ‘차차 병’에 걸리게 한다. 이렇게 ‘차차 병’에 걸린 사람들은 죽은 후에 ‘걸걸’하며 후회하지만 ‘때는 늦으리다. ‘그때 봉

사할 걸’, ‘그때 전도할 걸’, ‘그때 헌금할 걸’, ‘그때 잘할 걸’, ‘그때 화해할 걸’... ‘차차’의 결과는 ‘걸걸’이다. ‘차차’와 ‘걸걸’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다.

예수님의 비유에 나오는 부자는 이 땅에서 주어진 혜택에 만족하며 누리는 삶을 살았을 뿐, 앞으로 오는 세상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다. 주변의 연약한 사람을 돕지도 않았다. 그러한 그가 죽어서 지옥에 갔을 때 그가 한 일은 오직 한 가지, ‘그때 잘할 걸’ 하고 ‘걸걸’ 하는 후회뿐이었다.

마귀는 오늘도 우리가 ‘차차’라는 노래를 부르게 만든다.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결국에 ‘걸걸’하며 후회하는 날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온 가족의 영혼구원은 차차 할 일이 아닌 바로 오늘 할 일이다. ‘아직은 건강하니까 차차 하면 되겠지, 아직 나이가 있으니까, 아마 그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 나을 거야, 차차 시간이 해결해 주겠지.’ 그 결과가 ‘걸걸’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임택함 목사
cjcc1004@hanmail.net

이불부터 개세요

세상을 바꾸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미 해군 특수부대 사령관이던 맥레이브 제독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불부터 개세요.” 그가 미 해군 특수부대에서 기초훈련을 받을 당시 아침마다 했던 첫 번째 임무는 바로 자신의 침대를 정돈하는 거였다고 합니다. 그것은 얼음장 같은 바다 속에서 해야 했던 야간 수영훈련이라던가 고문과 다름 바 없던 모래사장 달리기, 무수한 훈련 등에 비하면 아주 간단하고 시시한 임무였지요. 하지만 그는 아침마다 이 사소한 일을 하면서 깨닫게 됩니다. 아주 작은 실천이 인생은 물론 세상을 바꾸는 첫걸음이 될 수 있다는 것ですよ. 작은 일조차 제대로 할 수 없다면 큰일 또한 제대로 할 수 없다는 것을 말이지요. 그는 말합니다. “매일 아침 침대를 정돈한다면, 그날의 첫 번째 임무를 완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작은 뿌듯함과 다음 과업들을 수행할 용기를 주죠.

지치고 힘든 하루를 보낸 어떤 날에는, 집에 돌아오면 정돈된 침대와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내 손으로 직접 정리한 그 침대를 말입니다. 그 침대는 내일은 더 나아질 거라고 우리를 격려합니다. 침대를 정리하는 이 단순한 행위 하나가 때로는 우리를 일으켜 세우고, 하루를 제대로 끝냈다는 만족감을 선사해주죠.”

저는 5년 전에 작은 원룸으로 독립을 했었습니다. 바쁜 날엔 이불에서 튀어나와 그대로 둔 채 출근하곤 했었는데요. 그러면 퇴근 후 현관을 열자마자 마주하게 되는 첫 광경이 몸만 빠져나와 동굴같이 된 이불이었습니다. 그걸 보면 왠지 더 피곤해지고 의욕도 사라져 아무것도 하기 싫더라고요. 그래서 퇴근하고 들어오는 저녁의 나를 위해 아침에 제가 한 일은 딱 5분만 시간을 내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밖에 나가기 5분 전에 이불을 개고, 잠옷을 걸어놓고, 바닥에 떨어진 머리 카락을 치우고, 현관에 놓인 신발을 가지

런히 놓았습니다. 그것만으로 하루를 꽤 괜찮게 시작한 기분이 들었지요. 맥레이브 제독의 말처럼 작은 뿌듯함을 느끼며 시작하는 하루는 이불 깎 시간도 없이 후다닥 집을 나서는 하루와는 분명 달랐습니다.

지금은 전보다 조금 넓은 집으로 이사를 했는데요. 이제는 매일 10분씩, 밖에 나가기 전에 집을 간단히 정리하는 게 습관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집으로 돌아왔을 때 깨끗하게 정돈된 집이 저를 맞이해주고, 가지런히 정리된 침대가 저를 격려해주지요. 이는 제게 굉장히 큰 힘이 됩니다. 예수님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가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가 큰 것에도 불의하다’고 하셨습니다. 달라진 하루를 원하시나요? 인생을 바꾸고 싶으신가요? 그럼 일단 이불부터 개어봅시다.

신은혜 성도
dopal0203@naver.com

Good News

일본에서 막 전도사가 되었을 때의 일입니다. 한국에서 온 지 얼마 되지 않은 남자 분을 전도하기 위해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IMF 위기 때 사업을 하다가 부도가 나서 일본에 돈을 벌려고 오셨는데 비자도 없이 가족들과 떨어져 막노동판에서 힘든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분은 만나기만 하면 신세를 한탄하며 불평불만을 늘어놓기가 일쑤였습니다.

그분이 교회에 처음 나온 날, 예배를 마치고 젊은 남자 집사가 상담을 신청해 와서 그에게 양해를 구하고 동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젊은 집사는 일본에 유학을 왔다가 졸업을 하고 일본직장에 근무하는 엘리트였습니다. 일본 영주권도 가지고 있고 가족들이 함께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인생이 힘들고 왜 사는지 모르겠다며 ‘죽고 싶다.’고 저에게 냉두리를 늘어놓았습니다. 그 모습을 본 새신자가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은 다 갖추었는데도 행복하지 못한 젊은이의 모습을 보고 이상하

다는 생각이 들었나봅니다. 그래서 그 두 분 앞에서 인생의 행복과 가짜 소망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행복의 비결은 성공이나 좋은 환경 때문만이 아닙니다. 아무리 좋은 환경이라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인생은 절대로 행복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물질, 명예, 쾌락과 같은 세상의 것들은 결코 우리에게 만족을 가져다줄 수가 없는 가짜 소망입니다. 인생의 행복은 오직 예수 안에 있습니다.

상화평 목사
sanghwapyung@hanmail.net

수요예배

매주 수요일 저녁 8시 30분 KBS88체육관(화곡동)
문의: 02. 533. 9191

이 정도면 되겠지?

우리 교회는 참 뜨겁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목사님의 모습을 우리가 잘 본받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뜨겁다 못해 유난스럽고, 극성스럽기까지 하지요. 이러다보니 부부간에, 부모와 자식 간에 신앙의 차이로 전 가족이 우리 교회에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를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꼭 예수중심교회에 나가야 하나?’는 것이지요.

가족은 전도하기 쉽지 않습니다. 총회장 목사님께서도 어머니를 전도하시기 위해 많은 기도와 노력을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또 가족끼리 신앙의 레벨을 맞추기도 쉽지 않은 듯합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우리 집도 부모님과 자녀들의 신앙에 차이가 있습니다. 매일 새벽마다 기도하시는 부모님과 토요일마다 기도처에서 기도하시는 아버지의 눈에는 수요예배나 청년부 예배를 종종 빠지는 자녀들이 눈에 찰 리 없습니다. 그때마

다 저와 형제들은 다른 장로님 자녀들, 다른 비슷한 수준의 청년들을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그래도 이 정도면 열심히 하는 편 아니냐’고 반박을 합니다. 그럴 때마다 부모님은 ‘구원은 개체이며 상급도 행위대로 주시는 것인데, 왜 남과 비교하느냐’고 호되게 야단을 칩니다. 사실 이렇게 올바른 가르쳐주시는 부모님께 감사드려야 하는 일일 것입니다. 분명 저는 제가 비교하는 다른 자녀들, 청년들보다 더 많은 복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부모님의 말씀대로 더 하나님께 시간을 넉넉히 드린다면 더욱더 복을 넉넉히 받아 누릴 것을 알고 있습니다.

얼마 전, 이시대 목사님께서 기름을 준비한 열 처녀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넉넉히 구원을 받자’는 설교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혼인잔치를 준비하던 열 처녀 중 기름이 부족한 다섯 처녀들도 분명 기름을 준비했으나, 다만 신랑이 오는 시간이 늦

어짐을 예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의 예상과 다르고, 성령께서 일하실 때 악한 마귀도 일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과의 시간을 넉넉히 예비해야 합니다.

저는 원래 토요일에만 일찍 들어와서 주일을 예비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청년부 예배나 수요예배도 몇 시간 전부터 준비하고 꼭 이날을 피해서 약속을 잡고자 노력합니다. 더욱 하나님께 나아가고 기도로서 복 받을 준비를 넉넉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정도면 됐지?’라고 생각하기 전에, ‘이렇게까지 준비했나?’ 하고 역으로 악한 마귀의 허를 찌르고 하나님과의 시간을 예비하여 날마다 예배에 넉넉히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김대화 성도
realdialog@naver.com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중학생이던 딸이 어느 날 눈물을 흘리며 청천벽력 같은 아픔을 털어냈다. “여자 애들이 날마다 돈 빼앗고, 남자에들은 화장실 끌고 가서 변기에 머리를 넣고, 가방 빼앗아 달아나고, 계단에서 밀고..., 너무 무서웠어요.” 딸아이가 느꼈을 공포와 두려움을 생각하면 역장이 무너졌고, 꽤나 오랜 시간 깊은 생채기를 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곤 아이에게 ‘등교하는 시간부터 주님을 불러라.’ 이것뿐이었다. 물론 나도 온종일 주님을 불렀다. 그때부터 딸의 입술에는 주님이 늘 함께했다. 다행히 대대적인 폭력척결이 시작되었고, 불량학생들은 전학을 가거나 징계를 받았다. 나는 ‘자신이 소극적이고 내성적이어서 불량아들의 표적이 되었다’고 스스로를 비하하는 딸에게 ‘내 성적이란 조용하고 여성스러운 것이고, 소극적이란 침착하고 조심스럽다는 뜻이야.’ 하며 나름대로 아이의 자긍심을 고취시키려 노력했다.

딸아이는 또래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고, 쉬는 시간에는 학생들이 기피하는 교무실에서 시간을 보냈고, 선생님들의 관심 속에서 센세이션을 일으키며 상황평준화의 커뮤니케이션을 쌓아갔다. 이 경험을 토대로 후일 거래처를 돌며 사장님들을 상대로 예수를 전하는 거침없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다.

무남독녀로 자칫 온실 속 화초로만 키워질 뻔한 딸은 고난이라는 성장통을 앓은 후 부쩍 어른스러워졌고, 어느덧 엄마의 힘이 되어 말쑥으로 서로를 바로 잡아주는 사이가 되었다. 또한 늘 딸과 동행했던 주님은 최고의 극상품 ‘생활기록부’를 안겨주셨다. ‘평소 언행이 바르고 심성이 착하고 따뜻하며 인성과 생활태도가 매우 우수하여 앞으로 하고자 하는 일에 무궁한 발전이 기대되는 학생.’

우리는 오늘도 ‘주여~’를 입에 달고, 발랄한 표정으로 찬송을 흥얼거리며 더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주님 안에서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 **추성숙 집사**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요한복음 14장 12절)

스승의 바람은 청출어람(靑出於藍)에 있다